

동네사람들 모여 신나게 놀아봅세~



제 1회 '용지마을 축제'가 8일 진안군 연정리 용지마을에서 열렸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주제로 진행된 축제는 마을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율놀이, 투호놀이, 고리걸기 등으로 시작된 행사는 판소리, 국악, 풍물놀이로 흥을 한층 더했다.

특히, '쑥 개떡' 체험과 '민속주' 시연에 인기가 높았다. 오후에는 주민화합노래자랑으로 흥겨운 잔치가 됐다.

이날 행사에 아리수(ARISU)음악공연기획팀은 구성된 민요가락과 풍물놀이를 선보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우석 용지마을 이장은 "마을이 이루어진 뒤로 처음 열리는 행사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축제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龍池(용지)'의 유래

한편, 龍池(용지)마을은 부귀산 자락의 뒷산을 등지고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정남향이다.

風水地理(중수지리)로 보면 背山臨水(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명당 마을이다. 북쪽으로는 명산인 부귀산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마이산이 보이며, 삼진강 물이 흐른다.

또한 좌청룡 우백호까지 이루어져 살기 좋고 편안한 마을이다.

지명의 유래는 龍池(용지)가 마치 용이 다니는 용문처럼 되어 있고, 이 곳에 용이 등천하고 살고 나간 굴이 있다고 하여 龍池(용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